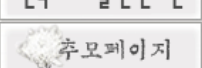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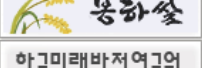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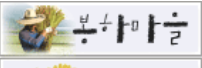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ID/PW 찾기

- 노무현이야기**
- 걸어온 길
  - 말과 글
  - 함께 생각해봅시다
  - 추모게시판
  - 좋은글과 영상



말과 글

안녕하십니까-봉하에서 띄우는 두 번째 편지

조회수 : 163017

등록일 : 2008.03.03 10:19



봉하에서 띄우는 두 번째 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러놓고 보니 호칭이 어중간하다 싶네요. 앞으로 어떻게 불러야 할지 좀 더 연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게시판에 들어와 보지 못하고 아침에야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빈약하고 불편해서 미안합니다.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사이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올리고, 연구까지 공동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웹 2.0 개념으로해보자는 것이지요. 3월 중으로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난 25일 다녀가신 분들 말고, 26일, 화요일 이후 이곳을 다녀가신 분들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중일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저를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한번 씩 현관에 나가서 손을 흔들어 봅시다만, 그분들도 저도 감질나고 아쉽기만 합니다.

토요일에는 나가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어 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뒤 엉켜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내 독길을 따라 화포천까지 걸었습니다. 독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분산시켜 도중에 손도 잡고 사진도 찍어보자는 계산이었습니다. 도중에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영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화포천까지 가서야 끝까지 함께 오신 몇 분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들판 길에서 다시 새로 오신 분들과 만남을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사람이 넘쳐서 인사를 포기하고 그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일요일은 아침 마실을 나갔다가 일찍부터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쫓겨(?)들어왔습니다. 오후에는 봉화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봉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손을 흔들어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얼굴도 알아 볼 수 없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거리에서도 서로 인사가 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산까지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서 손도 잡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 찍는 일이 큰일이었습니다. 일일이 주소를 적을 수도 없고, 적는다고 다 보내주는 일도 쉽지 않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일손이 많았는데 가끔 사진 안 보내 주느냐는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피를 낸 것이, 손님이 가져오신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 드리는 방법이었는데, 이것도 해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다가, 사진기를 가지고 오지 않은 분들도 많아서 그 또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기로 찍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사진 찍은 시간’으로 배열해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들어와서 찾아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신데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내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 아이들한테 말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며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에 떠내려 온 쓰레기, 누가 몰래 갖다 버린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천의 쓰레기와 오염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하늘이 새까맣게 철새들이 날아들던 곳입니다. 개발시대에 버려진 한국 농촌의 모습, 농민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버림을 받은 농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 자꾸만 부끄러워집니다.

산골짜기, 개울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은 우선 마을 사람들과 의논해서 치우려고 합니다. 화포천은 김해시와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도 이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다.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버리기만 하고 치우지는 않는 것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모역 안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이 문제입니다.

새마을운동을 다시 하자고 해볼까 싶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에는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농촌의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새마을 조직을 보면서, 부정적인 역사의 유물이라 하여 쓸모가 있는 것까지 모두 지워버리는 것이 꼭 좋은 일도, 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지역 사람들과 의논해 볼 생각입니다.

산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산림녹화에 성공한 산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뻑뻑하게 들어선 나무들, 그 아래를 짙게 채운 잡목들, 그리고 녁쿨들, 그러나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숲은 햇빛이 차단되어 죽어가는 가지들로 엉켜있고, 개울의 물은 말라버리고, 온갖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던 벌레들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있습니다. 나무와 녁쿨이 너무 뻑뻑하여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도 사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풀, 꽃, 벌레들과 다정하게 함께 뛰놀던 그 숲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 마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마을 가까운 야산은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풀, 벌레, 새, 들짐승의 생태계가 풍성하여 자연을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걷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숲으로 다시 가꾸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어떻게 부를까요? 노사모 여러분?, 친노 시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참여시민 여러분?, 국민여러분?, 아니면 그냥 친구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의논해 봅시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일 노무현



총평 311개

크리짱 2008.03.04 11:39

전 여기서 1등 할래요. 웹2.0=참여...그러므로 참여시민 ^^  
회원계시관은 이미 늦었구.. ^^ 이렇게 잊지 않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마음의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참여시민이 좋네요.... 참여... 웹2.0과도 통하는 의미니까요. ^^  
건강하십시오~~~

타인의삶 2008.03.04 11:54

친구 여러분  
요 친구여러분이 참으로 와닿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세요^^  
건강하십시오

시불이 2008.03.04 11:58

노사모도 아니고 친노시민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대한민국민입니다.

고봉산 2008.03.04 12:11

세번째 편지  
번거롭고 귀찮아하지않으며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암튼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번째 편지가 기다려집니다.

꿈의사람 2008.03.04 12:17

역시 최고입니다.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 다 생각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남다른십니다. 예전처럼 tv에서 자주 뵈진 못해도 웹상으로 자주 찾아 뵈겠습니다.

노란가인 2008.03.04 12:36

...

참 바보같았던 당신...그래서 너무 힘들고 외로우셨을 당신..  
우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합니다..

송영락의반 2008.03.04 12:52

어떤 명칭이냐가 중요하진 않을듯 싶네요...  
오늘 가입하고(마음으로부터의 진심이 담긴 지지는 처음부터 였지만^^\*) 처음으로 점심시간 이용해서 조그마한 흔적이나 남깁니다.  
그냥,우리나라 정치가 조금이라도 더 부당한 권위를 멀리 할수 있고,백성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정도의 뜻이면 어떨런지..

망간서치 2008.03.04 12:53

뵈고 싶습니다. 벌써 그림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목소리, 그 힘차고 당당한 목소리가 그림습니다.  
글을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자주 뵈겠습니다.

보네르 2008.03.04 13:04

참 좋아보이십니다.  
봉하마을로 가서서 생활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전 노사모도 아니지만 힘내시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친구여러분께 한표 던집니다^^ 건강하십시오~~ .

금붕어 2008.03.04 13:35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치 2008.03.04 13:59

변함없는 서민 대통령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해밀턴 2008.03.04 14:22

"친구들" 이라고 불러주신다면 더 좋겠네요 ^^  
^^

지훈이아방 2008.03.04 14:45

뜻을 같이하는 사람 "동지"  
동지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언뜻 북에서 쓰는 말 같지만 의미나 뜻은 정말 좋은 우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분단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호칭 "동지"를 살립니다..동지여러분..^^

꿈꾸세요 2008.03.04 15:04

좋은 느낌... 좋은 생각...  
노무현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도 봉화마을에 놀러가고 싶은데... 여기에서만 ... 느끼고 가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모습은 너무 좋네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서민미진 2008.03.04 15:07

아쉬웠어요  
3일 오후에 사저 앞에서 많은 분들과 뵈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는데 10분전에 산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차를 안가지고 와서 더 어두워지면 나가기가 힘들어서 신앙이랑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냥 돌아올수 밖에 없었어요.. 넘 아쉬워요.. 다음에 조금 한가해지면 노무현님과 꼭 같이 뚝길을 걷고 싶네요.. 건강하세요.

독섬 2008.03.04 15:13

존경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일이 좋습니다.  
친구 여러분! 좋습니다.  
제 나이 51살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대통령으로 계셨던 5년 동안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끄럽지 않았던 시절이었던듯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님께서 살아 오신 발자취가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가까운 시일내로 봉하마을로 찾아뵈겠습니다. 악수 한번 해 주실거죠?

제프 2008.03.04 15:22

날 따뜻해지면 봉하마을에 한번 찾아뵈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별바라봄이 2008.03.04 15:22

이글을 보고 우리 마누라 정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 말이 노무현 대통령 말투가 느껴지는 글이라네요...정감있고 친근하면서도 우리주변에 사소한 것들에 대한 애정이 깃든...그런 글이라고요..나중에 좀 뜬해지면..그때 마눌 데불고 한번 가려고요...^^ 요즘 심사 편하시지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좀 꼭 쉬세요.. 앞으로도 오랜동안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길라는 믿음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minicrom 2008.03.04 15:25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갑니다. 담배꽂초도 많겠군요.

사람이되자 2008.03.04 15:40

서민적인, 평화로운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웃아저씨같은 편안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이시길 바라면서,  
걱정이 되는것은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호하시는 분들이 잘하겠지만, 신변 보호에 좀더 신경 써 주시길 하는 바램입니다.

비스토짱 2008.03.04 16:06

친구여러분 한표 추가요!! ^^  
제가 한참 어리지만!! 가장 정겨운 말인거 같아요!! 친구 ^^

유심조 2008.03.04 16:22

보기가 좋네요  
동선을 따라 모습이 그려집니다.  
정겹고 그립습니다.

내일은 희망 2008.03.04 16:24

그냥 좋습니다.  
노대통령님, 이렇게 친근한 글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봉하마을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뜰때까지...  
근데, 그 시간이 빨리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은 대통령님의 글을 읽으며 만족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저희가 어찌 불러야 적당할까요? 전대통령님은 누구와 혼동되고, 노대통령님도 ... 노짱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참여시민에 한표 올립니다.

가가멜 2008.03.04 16:33

좀 조용해 지면 한번 꼭 뵙고 싶네요.  
시간이 좀 흐른 후 조용해 저서 개인적이 시간을 좀 지내시고 나면 그때 한번 내려가서 뵙고 싶네요.

사진기는 꼭 제철로 찍고 싶습니다. ^^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신경을 계속 써주시길.

대신 담배는 좀 끊으세요~~ 몸에 안 좋아요~~ ^^

넉은쉐타 2008.03.04 16:36

꼼꼼히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년은 우리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지난 5년을  
위대하였다 평하리 믿고 또 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zibryany 2008.03.04 16:42

그저,,, 충만한 함박웃음이 지어 집니다....  
이제서야,,, 알것도 같습니다! \*인동초\* 의 장함과 아름다움을....노짱과 한 하늘아래 함께 살아 숨쉬고 있음을 하느님께 감사 드렸  
습니다....

소프냥 2008.03.04 16:55

저도 친구 여러분에 한 표예요  
2002년 12월에 찍은 한 표. 한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노짱!!

일송정 2008.03.04 16:59

야유회????  
세상의 모든 먼지 털어내고 빈손으로 야유회 한번 감시다. 모두모두 친구처럼, 형제처럼....  
너무너무 그립네요....

향지니 2008.03.04 17:02

동지, 친구, 여러분,모두 좋아요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동지.가 가장 맞는거 같지만  
단어에서 느껴지는 북한색이 너무 강하다면 친구.도 좋은거 같아요.  
하지만..여러분.이라는 말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로 완벽하게 저희를 표현하기 힘드시거고  
부르시기도 힘들거예요.  
때에 따라. 그냥 편하게 부르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만 고르라면  
친구.  
저희는 모두 뜻을 함께하는 친구니까요.

낭만식객 2008.03.04 17:21

친구....  
네 저희들은 노사모이면서 친노시민이었습니다. 민주시민이었고..참여시민이었습니다.

이젠 친구가 가장 잘 어울릴것 같습니다.

면발치에서라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

만소리 2008.03.04 17:24

열기가 식을 줄 모르니...  
도대체 노무현전대통령님 인기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식을려나... 인기가 식어  
봉화마을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며 조금만 마음을 달래보는데 당채... 식을 줄  
모르니... 여름이나 되어야 봉화마을로 노짱님 뵙러 내려갈 수 있으려나....^^

닭고싶은사람 2008.03.04 17:27

한마음을 가진 여러분?^^  
홈피 훑시나 또 너무 요란하게 치장하지 마세요. 조중동 난리 납니다. "노무현타운 봉하마을도 모자라서 인터넷까지" 뭐 이정도 기  
사 나지 않을까요..^^

현이27 2008.03.04 17:40

정말다행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계신다는게..

현이27 2008.03.04 17:40

정말다행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계신다는게...

nosamu 2008.03.04 17:42

" 노짱 사랑 무덤까지 간다! "  
그래서 제 아이디가 '노사무' 입니다^^

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고싶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고요..  
노짱님같은 천연기념물 정치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커다란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노짱님을 첫대면한 것은 92년 4월 선거 때 부산에  
내려갔을때였고요~  
2002.3/16일 저녁 광주경선 발표(노짱 1위)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노짱님 10년후에도 지금처럼 건강한 체력 유지하세요

아름다운노을 2008.03.04 18:13

친구 좋아요~~  
퇴임후 국민이 사랑하고 인기있는 대통령.. 정말 보기좋아요...뿌듯하고...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항상 건강하세요~

玉峰 2008.03.04 18:21

맞습니다. 맞고요  
농촌 환경, 도시 빈민가 환경 제 정비 해야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이후로도 농촌의 자활 노력, 정부의 지원 등  
으로 많이 개선 되었지만 그 개발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지역적 특성도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고 명 해도 좋고 농촌 부활운  
동 해도 좋고, 지역 경제와 농촌 경제, 그리고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어우러 지는 변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쥐 2008.03.04 18:26

친구! 좋은데요..  
가장 편안해 보이네요...

知天命 2008.03.04 18:29

우리도 지지인이라 불러 주세요  
어느분은 당선자가 싫다고  
당선인이라고 하더군요.

내 예견이 맞았습니다.  
조중동이 씹고 또 씹을 때  
주의에 노무현 지지인들이 안타까워 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끝나면 모두들  
지난날을 그리워 할 거라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고...

강풍 2008.03.04 18:29

참 멋스러우십니다  
항상 노짱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세상의 어느정취누보다도 순수와 열정 그리고 진실함이있고 항상 약자를 배려하기에...  
고마고 감사합니다.

cent21 2008.03.04 18:51

이런분인줄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소탈하고 똬똬 아저씨 같은분을.....사랑합니다. 항상 뜨거운 마음가지시고 건강하세요

백곰 2008.03.04 19:08

제얼굴에 미소가  
글을 읽는것만으로 제얼굴에 미소가 머뭍니다. 참으로 좋아보이십니다. 앞으로의 차기 대통령들의  
퇴임후의 좋은 선례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대통  
령이실때 나는 내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허니랑 2008.03.04 19:16

편해보여서 좋네요!!  
친구들 좋네요

wheel7 2008.03.04 19:31

명칭이야 뭐 우리는 하나인데요  
멀리서나마 이렇게 소식을받고 전할수있으니 좋네요

시리유니나연 2008.03.04 20:06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시인을사랑하는이 2008.03.04 20:14

인터넷 시작하면 제일먼저 노무현 쳐보는데요 ^^  
인터넷 시작하면 제일먼저 노무현 쳐보는데요 ^^ 그냥 기분이좋아지는 이유가 따로없는거 같나요. 그냥 한번 보고 나면 그다음  
일이 즐거운거요. 광대가 춤을 추면 눈이즐거운데 여기 들어와서보면 마음이즐거운데요 ^ 아자

청통면 2008.03.04 20:49

참여동지 여러분  
.....^^;

안나(황경화) 2008.03.04 21:20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뵈 수 있으니 너무 기쁩니다.  
마음이 답답할때마다 여길 찾게됩니다.  
호칭이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부디 건강하세요.

platonía 2008.03.04 21:22

참여 시민 여러분..!  
참여 시민이 더 상금한테요..? ^^

자문위원 2008.03.04 21:47

소견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저나 대통령은 다같은 한국인들인데..  
호칭이 뭐가 필요합니까? ㅎㅎ 저는 인간적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무당 2008.03.04 22:18

친구도 좋고 참여시민도 좋고 ...  
뭐든 다 좋습니다, 이거면 어떻고 저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통하는게 중요하지요.

승이아빠 2008.03.04 22:45

항상 건강하십시오..^^  
^^참여시민^^  
강력추천합니다,,조.중.동에서 또 만지거들랑가요.

대곡 2008.03.04 22:53

친구 좋은데요.....^^  
5년전 처음으로 정치기부금(?)4만원의 인연으로 노짱을 좋아하게 되었지요...이의있습니다.. 높이 손든 당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정직하며..곧고 바른길 걷기를 다짐하곤 합니다...

부산아지매 2008.03.04 23:04

'봉화' 정말 친근 합니다.  
긴 편지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니 얽은 미소가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가끔씩 가슴에 와 닿는 편지 올려 주시면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표현이 참 좋을듯 싶습니다.  
친구.....친구.....  
짧은 두 글자에 가슴이 뵈니다.

고향마을에서 늘 평안하신 날들 되십시오.

정치=인생 2008.03.04 23:09

중립적인듯 하면서도 노무현대통령님 때가 회상되는  
참여시민 여러분~이 좋은데요~^^

파란바람.. 2008.03.04 23:15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항상 그래 오셨듯이 변함없는 모습 진정 아름답습니다.  
8살,5살 저희 애기들이 커 가며 저와 같은 감동과 존경을 배울 수 있도록 오래도록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님의 행복을 찾으셔도 모두들 기쁘게 이해 할 겁니다.  
이~~야~~~~ ^^

맘샘 2008.03.04 23:15

대통령이란?  
대통령이란? 우리에게 그냥 높으신 분 그냥 존경해야 하는 분 그냥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허나 당신은 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친구같은 존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이요 그래서 존경스러운 분이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한 시민으로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언제나 지금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 맘샘(맘 흘려  
샘 솟아라!!!)

기차 2008.03.04 23:43

다시 한 번 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권력을 갖은 대통령도 좋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속에서 시민대통령이 진짜대통령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우리들의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건강하세요.

노생금 2008.03.04 23:54

현사랑 여러분~ 이 어떨까요..? ^^  
노무현 대통령의 끝자인 현자를 따서 현사랑 여러분이 어떨까요..? ^^  
조만간 봉화마을 여행길 다녀올까 벌써부터 맘먹고 계획하고 있는대요..  
부디 운 좋게 대통령님 한번 뵈실수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전 꿈에서 저에게 환하게 웃어보이시며 약속했는데요..  
꿈이지만 아직도 그때의 감격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건강하시구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마음도 편할테니까요..

서프이순신 2008.03.05 00:54

저도 이번 주 아님 다음 주 토요일 봉하마을 갑니다. 네비도 샀습니다... 내게도 행운이..... 주여... MB주여는 아니구요..  
...

신갈나무 2008.03.05 01:01

<마을숲가꾸기>에 대한 소견 1

마을숲에 대한 관리에서 자연성이 높은 보전보다는 학습과 휴식의 장으로서 보전적 이용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자칫 숲 가꾸기가 지나치게 인위적일 수 있다는 데에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숲 가꾸기>라면 자연성과 지역성을 외면한 인공적인 식재와 식재수종 이외의 것들은 제거하는 관리를 시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마을숲 가꾸기>에 기존의 임업적 관점 이외에 생태적 관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갈나무 2008.03.05 01:03

<마을숲가꾸기>에 대한 소견 2

산에 아무 쓸모없는 식물은 없습니다. 한 식물이 현재 이용의 가치가 없을 수는 있지만, 잠재 이용 가치나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에게는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야생동물에게는 가치로올 수 있죠.

신갈나무 2008.03.05 01:03

<마을숲가꾸기>에 대한 소견 3

뽀뽀히 자란 나무와 덩굴들은 인간의 교란 이후 숲이 자연적으로 재생하는 과정(천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20년 후에는 그 중에 일부는 햇빛과 뿌리 경쟁에서 져서 죽고, 나머지 일부만이 그 숲을 대표하는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덩굴들은 중에 따라서는 끈게 자란 나무와 경쟁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으므로 좀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넝쿨이 아니라 덩굴이 표준어로서 맞습니다.

신갈나무 2008.03.05 01:04

<마을숲가꾸기>에 대한 소견 4

지난 3월 1일 봉하마을 앞 농로길 인과 속에 저의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가서 멋진 봉화산을 들뜰에서 바라만 보고 왔는데, 다음에는 저도 봉화산을 오르며 봉화산의 숲을, 나무와 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빙고1 2008.03.05 02:15

님은 이시대의 진정한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존경합니다~~  
이런 표현말고 더 강렬한 무슨 단어가 없을까요?  
둘도 없는 친구같이...이웃집 아저씨같이..  
님의 곁에...절대 변하지않는 ...우리가 함께 할게예요..

송아지 2008.03.05 08:52

원칙과 소신

지키신 원칙과 소신이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스타우트 2008.03.05 09:56

노사모는 아닌거 같습니다..

노사모는 아닙니다...저말구 다른 많은분들 또한 노사모랑은 상관없는 그냥 인간적으로(?) 노태통령님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이 홈페이지 많이들 찾아올꺼라 사료되는군어..  
저도 한표 행사합니다 "친구여러분" 좋은데요...^^ 건강하십시오~

자랑스런조국 2008.03.05 10:02

봉하마을분들 부럽습니다.

^^

주당배격 2008.03.05 10:46

친구의 옛말표현 "몸알리"어때요?

몸알리 여러분~~~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귀 사람,또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로 그의 옛표현 "몸알리"로 호칭하면 어떨까요?

가족사랑이야기 2008.03.05 11:14

친구여러분

참 인간미있고, 따뜻한 이웃으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사회의 계몽운동을 이끌어 주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희망으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첨예하거나 민감한 사안들은 현 제도권에 위임하시고... 그래서 좀 친숙하고 가까운 호칭이 좋아보여요. 늘 건강하세요.

허당 2008.03.05 11:27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꼭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돌박이 아들놈 하나 있는데 대통령께 덕담 한마디 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넘 많은 분들이 가셔서 대통령님 힘드시게(?) 하는건 아닌지...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기회는 올런지...쩍~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nayana 2008.03.05 11:29

변하지 않는 사람

르르르

K2 2008.03.05 12:35

큰 물길로 흐르시면서도 지친과 소소한 시내를 담아 가시는 모습.. 참 보기좋고 고맙습니다 ^^

인터넷 동호회도 사진은 대부분 카페나,홈에 올려서 전달하는데 그게 켈 수월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나...신경을.. ㅎㅎ) 최고 권력자에서 시민의 이웃으로 내려서기란 막상 쉽지가 않는데 참으로 대단하시다는 생각입니다^^ 살아오신 모습이시겠죠. // 참 호칭은.. 너무 격이 없어도 그렇고... "참시민 여러분","交友 여러분" ...이정도에 한표입니다^^\*(건강한 한주 되십시오 \*)

바람~ 2008.03.05 12:53

빨리 찾아 봐야 되는데....

대통령님 계신 곳에 빨리 한 번 찾아 뵙고 싶은 맘은 간절한데...

사실 멀다는 핑계는 대 보지만...

아직은 그냥 마음 뿐인 거 같습니다..

찾아 가서 못 뵙더라도...

빠른 시일내 놀러 가겠습니다...^^

용생대왕 2008.03.05 13:31

노무현선생님

저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예정입니다.

노무현선생님!!!

평등을위하여 2008.03.05 13:46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ㅋㅋ 언제 한번 갈게요 ㅎㅎ

1

2의 건국 2008.03.05 13:52

3월3일

현직에 계실땐 비판도 하고,동참도 하였지만 막상 퇴임하신 요즘이야말로 인간 직전대통령님의 참모습에 세상맛을 좀 느끼는것 같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절제해야하는 격식에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가슴속 삶의 희망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방향에서 이끌어 주시길.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유미 2008.03.05 14:09

하고싶은 일.. 모두 다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이런 저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라는 글귀가..

내내 머릿속에 맴돕니다.

다 하실 수 있을거예요^^

경칩이라 이런지는 몰라도.. 날씨가 꽤 화창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되세요

상식이 2008.03.05 14:36

호칭은요?

"참여시민 여러분"이 좋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를 상징하고, 그리고 친노 든, 노사모 든 거기에 참여하고 대통령 노무현님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결국 원칙을 중시하고 정의를 존중하고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야호1-23821908129 2008.03.05 15:09

호칭에 노사모는 반대입니다. 넓은 의미의 호칭이 좋을듯

저도 노전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노사모는 아닙니다.

지지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훨씬 광범위한 국민들이 관심이 있기때문에 범위를 굳이 좁혀서 노사모 여러분 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의 호칭이 필요하듯 합니다.

친구 여러분도 좋습니다.

피주는바이러스 2008.03.05 15:13

참여시민!!!

가까운 옆집아저씨 처럼 느껴지는군요. 건강이 첫째란걸 아시지요. 두분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fact 2008.03.05 15:21

참여시민이 좋은것 같은데요

대한민국대통령중에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권력,돈에 욕심이 없는 대통령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세상을 만들고싶다는 대통령 지난5년 행복했습니다

강주 2008.03.05 15:36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 되신것도 자랑스럽고 임기동안 치적도 자랑스럽고 퇴임후의 모습도 자랑스럽습니다. 재미없는 세상 희망이 되어주셔서 행운으로 알고 지냅니다.

담식이 2008.03.05 15:51

잘한일이 많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는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대한의협객 2008.03.05 16:20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호칭은 부르는사람이나 듣는사람이나 편하고,친근감이 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여러분 이라고 부르면 좋겠네요?

장유 2008.03.05 17:02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감을 심어주시고 도저히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글 올립니다

호칭은 사랑하는 우리가족 여러분으로 불러주세요..



우리는 자랑스런 대통령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꿀통 2008.03.05 17:09

"친구 여러분" 에 한표 보탭니다..  
편한 모습,,,, 정치적 색채가 없어보이는듯 해서 좋습니다....

bara 2008.03.05 17:32

신바람....  
그동안 편안하시지요?  
오늘 회원가입하고 이렇게 늦은글 올립니다  
아름답고 신바람나는 사회를 위하여.....그리고 잘못된 정치를 위하여 언젠가는님이 꼭 한마디 하여주시길라 믿습니다 언제쯤 시간내서 님의 氣를 받으려 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레드업 2008.03.05 17:41

당신이 너무 자랑스롭습니다  
분명 역사는 정당한 평가를 해줄겁니다.  
다만 당신이 펼치고자 하는 뜻이 보수언론에 의해  
국민들에게 변질되어 비치는 모습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봉화마을에 꼭~놀러가겠습니다^^

앵두사랑해 2008.03.05 17:46

친구 여러분이 좋을듯 싶네요  
보고 싶어요..우리의 대통령님.

인본시대 2008.03.05 17:54

참여시민이 좋을 듯 합니다.  
25일 가서 멀리서 뵈고 너무 좋았습니다. 목포에 사는 후배랑 같이 갔었습니다. 대통령님과 막걸리 한 잔 하고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karz 2008.03.05 18:22

봉화마을 꼭 한번 가보고 싶군요.  
하지만 항상 야간 교대근무 하는 저로써는 쉽지 않을 일T\_T;

따뜻한조상 2008.03.05 18:24

수준높은 대한민국 사람의 명칭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최고의 역할을 수행하신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러주는 호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힘있는 구호로 "창조하는 생명여러분"이라고 불러주면 합니다.

동구에서만남사람 2008.03.05 19:25

노무현 전 대통령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전 경남 양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 언젠가 부산 동구에 출마 하셨을때( 상대후보.허삼수)악수도 해본 영광 스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오녀산성 2008.03.05 19:28

잘 살려 주십시오.  
봉화산은 확장시절 소풍을 자주 갔던 곳이고 화포천-봉화마을앞 철독길 건너편 조그만 산이 있는 곳-은 어린시절 소풍 먹이며 먹갈던 곳입니다. 고향갈 때마다 맘이 아팠는데...  
잘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동참을 하고 싶구요...

바람나라 2008.03.05 20:07

저도 가까이에서 빨리 뵈고 싶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한결 편해진 글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습니다. 청화대를 등지고 돌아온 자리가 허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봉화마을을 찾아다니 제 마음도 급해집니다. 사진 찍은 신분들 좋겠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저희 영원한 대통령과 꼭 사진을 찍어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셨요. 앞으로도 자주와 글을 남기겠습니다.

강변길 2008.03.05 21:08

나에 영원한 대통령  
나에마음속에 영원히 노대통령님을 모셔 놓겠습니다

유비쿼터스 2008.03.05 21:42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진실은 불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맘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대통령님 이제 많이 사셔도 30년, 저도 30년입니다. 호흡이 있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을 것을 압니다. 세상은 멋 멋하고 바른 사람 바보로 여길지라도 오늘 저녁 잠자리에 편히 들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사람이하늘 2008.03.05 22:15

자유를 즐기셔야 하는데...  
한번 찾아뵈고 싶어도 고생만 잔뜩 안겨 드릴 것 같아 좀 미루려 합니다. 택에서는 사람들의 박수를 언젠가 말씀하셨던 '고독'으로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리둥절 2008.03.05 22:32

고향에 계신 모습이 좋습니다.  
5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약속하셨듯이 고향이 계신 모습을 뵈오니 역시 대통령님 이시구나 싶습니다.  
편안한 모습, 정감이 있는 모습 계속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과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봉화마을을 찾아뵈겠습니다.

한민족의꿈 2008.03.05 22:57

모모여러분 어때요! (인간은 사랑없이~ 살수 없단~것을 모모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모모는 방랑자  
모모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빠~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모모는 환상가  
그런데 왜  
모모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없이~  
살수 없단~것을  
모모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글 2008.03.06 08:08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가장 존경 받아야 되실 분이십니다.  
참 보기 좋고..존경 스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서민(농촌)을 위해 한번 더 힘을 보태 주십시오.

alkoh 2008.03.06 08:56

'국민 여러분'으로 하십시오  
대통령이 물러나면 전대통령이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고참은 영원한 고참... 이렇게 정서에도 맞고요...  
노 대통령의 가치와 행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르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행복샘 2008.03.06 09:18

너무 보기 좋은 전통을 만드시는 노총님!!! 늘 건강하십시오.  
사랑하는 행복시민 여러분!!! 조금 의도적인가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듯합니다.

유령 2008.03.06 09:42

참여시민에 한표...건강하세요.  
자랑스럽습니다.

깡상도뻘질이 2008.03.06 09:42

저도 존경하지만.....  
저희 딸이 무지 무지 좋아합니다. ..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고 자꾸 욕이는 통에 제가 손발 다들었습니다  
봉화마을에갔다 조금 일찍 오는바람에 그만 뺨질못하구 왔더니  
우리딸 아주날리를 치더군요...

카리마 2008.03.06 09:44

환한 웃음이 그림습니다.  
한번도 뺨지는 못했지만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그냥 입가에 웃음이 물어남니다^^  
웃으시면 하회탈처럼 주름지시던는 귀여우신^^ 그 환한 웃음이 그림습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우주바라보기 2008.03.06 09:56

하늘 가득 칠새떼의 모습이 그리워지는군요~  
진솔한 글에 묻어나는 따뜻한 情과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키우고 계시는 모습에 기쁠따름입니다. 여느 전 대통령직에  
있었던 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 더욱 기쁘고, 한편으로 기대도 큼니다. 응원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길...

민들레같이 2008.03.06 10:07

두분(영부인님, 노전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늘, 건강하시구요, 이나라에 함께 계시기에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홈페이지 호칭에 관해선, 우선은 홈페이지 가입한 관심만이라도  
"동지(同志)분들이 아니가 싶습니다. 동지만 된다면, "동지여러분!!" 하셔도 좋을듯요.

trew 2008.03.06 10:37

참여시민  
참여시민이 낯졌네여! 노사모는 웬지 일정부분 한정을 짓는것 같아서.....  
오늘 민주당의 공천혁명?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여...  
조금만 쉬시다가 빨리 정치활동을 재개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핫팅

윤승환님 2008.03.06 12:19

언제까지 고향에만 계실건가요?  
전라도에는 안오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오실때까지!!

윤승환님 2008.03.06 12:20

광주도 님이보고 싶습니다.  
언제오실겁니까.  
빨랑오셔서 힘을 주세요!@!

등이랑 2008.03.06 12:48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앞으로 더 많은 업적을 이루세요  
참여정부 5년은 역사가 올바른 평가를 해줄겁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 지도자로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정원 2008.03.06 13:00

점심 잘 드셨는지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7일, 밤에 봉화마을에서 막차 놓쳤던, 시민입니다. ^^

생각나서 들렸어요. 점심 잘 챙겨드시고.

좋은 오후, 저녁시간 되세요!

늘 그렇고, 소식이 궁금해요. 세 번째 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하~^^

몬느 2008.03.06 13:06

국민 여러분이 좋을거 같네요^^  
어튼 글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느껴져 참 정답구나 싶은게..  
건강하신거 같아 다행입니다^^

돈나무 2008.03.06 13:18

꿈에빈 노무현전대통령님^^  
컴퓨터가 속을 썩이는 관계로 한참만에 들립니다..근데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셨네요..바쁘실텐데..고ㅎㅎㅎ 기분 좋습니다. 좋은 일  
이 생길것만 같은 실례임~ 오늘 화포천 쓰레기주우러 가신기사와 사진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쓰레기버리지  
는 않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버리지않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국민여러분? 좋은호칭을 기대하며 이만 물러갑니다~~

bbistonetwo 2008.03.06 16:01

우리대통령님  
쓰시는 글마다 정감이 넘쳐서 대통령님을 존경하지 않을수가없습니다  
먼 발치라도 뵈고 싶지만 대전이라 봉화마을은 너무멀고 가더라도 뵈지 못하고 오랜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가족들이 속상할까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감이 넘치시는 우리 대통령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비바장고 2008.03.06 16:54

즐거운 생활 좋아 보입니다.  
하루하루 적자생존의 경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끔 휴식이 필요할 때 봉화마을을 찾고 싶어요. 잘 꾸  
며 놓으세요

멀치다바 2008.03.06 17:25

참여시민 한표! ^^

..

멀치다바 2008.03.06 17:26

참여시민 한표! ^^

..

호빵종아 2008.03.06 18:26

평범한 "여러분" 좋아요 ^^  
모두모두 포용하는듯 하잖아요 ^^

노대통령님수고하셨습니다 2008.03.06 21:30

^^ 고생하시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내용없음

GS 글로벌 2008.03.07 09:28

가족여러분이 어떨까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어떨까요??  
너무 밍밍한가요.....

사랑해...눔 2008.03.07 10:17

친구가 좋네요...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는게 자랑스럽네요.  
건강하세요.

가요 2008.03.07 16:23

이 땅에 살았고 살아야 하기에...  
내 부모와 내가 살아왔고 내 아이들이 살아야 하기에 이땅을 사랑했고 그런곳이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으  
로 소시민과 통하는,오랜시간을 같이 함께하는 형이요 오빠로 남아주세요. 꼭이요! 건강하시고요...

uqsong 2008.03.07 17:26

저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저희들은 노전대통령님을 어떻게 부를까요?  
노전대통령님? 너무 길어서...  
노무현님?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셨는데 좀 무례한것 같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보좌관님들은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새치머리 2008.03.08 10:49

존경합니다!!  
마니마니~~~

이장69 2008.03.08 11:09

친구가 좋아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항상 행복 또 행복하세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화이팅..!!

힘찬내일 2008.03.08 12:32

저도 친구가 좋을듯...  
그럼 존경하는 친구가 생기잖아요~~` 것두 전직 대통령님을...^^

노마 2008.03.08 12:59

'모두들' 어때요?  
여러분이 너무 평범하다 싶으시면  
모두들이 어떨까요?  
여러사람들이 아니고 좁게는 이홍피를 방문하는 모든사람들  
아~주 넓게는 살아숨쉬는 모든사람들..이란뜻으로요...  
반말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꼭그렇지만도 않아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지요...괜찮지 않아요? ^^

아버지 2008.03.08 14:23

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시민으로 돌아가셔서,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시는  
님이 자랑스럽습니다.광주에서

뉴런 2008.03.08 15:34

역시 역대 대통령 중 최고 민주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이 좋을듯 합니다.

울트라바보 2008.03.08 23:23

사랑하는 여러분 ^^  
ㅎㅎ

두렁 2008.03.09 13:42

고맙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

아과도 웃기 ^^\* 2008.03.09 14:42

"사랑하는 벗님들"은 어떨까요? ^^\*  
대통령님은 큰벗님,  
우리는 벗님. ^^\*

나루터기 2008.03.10 04:15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나왔다는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만 이렇게밖에 대우못해주는 우리나라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꼭 한번 뵙고 싶은 한분입니다. 제가 이런 대통령을 뵈는데 한표 찍었다는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姪垣 2008.03.10 09:47

민초님은 어떤가요?  
찾아보니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억압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말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 이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남갈선생 2008.03.10 13:24

제 생각엔 "국민여러분!!"이 좋을것 같은데...  
이제 낙향하셔서 꼭 마을 이장님 같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물론 마을을 뜻하는 洞은 아니  
고요...그렇다고 지금와서 "국민여러분"하고 부르는 것도 뼈뺏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무슨 털거지 잡힐지도 모르잖아요.. 내 참  
살다보니 별 걱정까지도 다 하게 되네요...쩍...

봄에는꽃 2008.03.10 15:08

불러만 주세요  
뭐라고 하면 어떻나요 그냥 불러만 주시면 그 말씀 속에 따뜻함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단팔빵 2008.03.10 21:16

야 사진도 잘 찍어 주시는구나...  
정말 반갑네요 사진을 잘 찍어주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경호원 때문에 못 찍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내랑 가서 제 카  
메라 들고 갈꺼니까 펄쩍 찍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사실 지금은 사진찍을 궁리밖에 없답니다. ㅋㅋ

데미안66 2008.03.11 13:17

새마을운동 좋은 생각이십니다.  
관주도의 운동이 아니라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이 이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至仁 2008.03.12 18:59

친구 여러분이 좋을듯 합니다.  
제 친구가 전직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친구가 좋아요.

포포포비 2008.03.13 02:39

친구하고 싶어요^^  
"어구~내 친구 중에는 대통령두 있어!"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친구하면 안 될까요? ㅎㅎ 친구는 제 소리를 알아주는 이 없으면  
소리를 내지 않고, 한밤중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가도 흉보지 않으며, 불시에 쳐들어 와도 더없이 기쁘다고 하드라구요. 제가 가장 좋

아하는 친구는 스승과 같은 인데요 어떻게 스승에게 흰소리하겠어요? 걱정마시구 저희... 친구해요^^감기 조심하세요오\*\*\*

로빈 2008.03.13 22:14

쓰레기를 버리다녔...  
너무했네요 깨끗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이라니..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보는 내내 웃음이 났답니다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저도 같이 사진 찍고싶네요

참일꾼 2008.03.14 17:32

당신은 영원한 쟁입니다  
요즘 드라마 이산을 보면서 왕위를 등극 하는 과정이나 등극후 노론세력 저항을 보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낸 당신은 이시대를 바꾸어 놓은 최고의 대통령~~ 쟁입니다. 감사합니다.

향기나 2008.03.14 18:03

찬구가 좋을듯??  
그냥 친구라하면 좋을듯 싶은데...이래저래하면 거리감이 들것 같아서요.  
5년간 참 많이 고생하셨고요..분명 역사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대륙 2008.03.17 21:57

상록수를 보며  
하나의 작은 힘이 큰 밑거름이 되고, 열정과 순수함이 눈가의 촉촉함을 느끼게 합니다.  
늘 나라사랑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길...^\*^

푸르른날엔.. 2008.03.18 00:31

"지킴이(지킴이)"는 어떨까요??  
나라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지킴이" 황폐화 되어가는 환경을 지켜주는 "지킴이"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지켜주는 "지킴이"  
그리고 늘 한결같은 마음 변치않도록 지켜주는 마음"지킴이".....우리모두 진정한 지킴이님들입니다.....존경합니다....대한민국 하늘  
아래 함께 한다는것만으로도 가슴벅차 오릅니다....진정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달이 2008.03.18 01:42

사랑하는 대통령님~임~  
하겠습니다..제 마음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대통령님 저요 몹시 괴곤합니다...그러한데도 이곳에 들어오면 입을거리가 너무 많아 자리를 뜰수가 없습니다.조금만 일  
고 하겠습니다..저두 4월9일 선거후엔 봉하마을에 가겠습니다..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표시는 안나지만 글이 또 못올라가고 지체 되  
는군요.

kingkong 2008.03.18 17:33

'여러분'이라고 불러주세요!  
전 노사모 회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터 노무현님의 왕팬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우리사회는 모두가 함께하고 발전시키고 누려야 하는것이니까  
이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국민과 한국에 사는 이국인들까지) '여러분' 하고 불러주세요!

창창창 2008.03.19 19:13

배려에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한두시간을 훌쩍...~~ 항상 아쉬운 맘으로... 페이지를 닫습니다...

잘만 2008.03.21 08:55

또 다른 행복을 주시네요  
저는 전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않아 노무현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직에 계실때도 어떤 희망과 나아지고  
있는 현실에 기쁨을 주셨는데 시민이 되신 지금도 또다른 기쁨을 주시네요. 전직대통령님들 중에 이렇게 대중에게 다가오시는 분  
은 없었을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게~~속 행복하겠죠...^^

stane 2008.03.22 18:32

아버지같은 대통령님  
정말 아버지같으시고 또 삼촌같으신 대통령님..호칭은 제 생각이지만  
옛 고, 벗 우 를써서 고우가 어떨런지요.? 서민들과 오랫동안 함께한 대통령이셨고  
늘 푸근한 우리의 아버지같으시고 또 삼촌같으셔서 고우라고 한번 불러봅니다.^^

대하아빠 2008.03.23 09:40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참여시민 여러분"  
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철학과도 일치할 것 같습니다.

꿈꾸는사랑 2008.03.24 18:18

행복했습니다.  
당신이있어서 행복했습니다.꼭 그곳에 가서 당신을뵙고싶습니다.

★양女★ 2008.03.26 05:22

친구 ~ 님 좋은거 같아요~  
보고싶어요~一一;

란슬릿 2008.03.26 09:02

노무현.대통령님.. 사랑합니다. ^^.. 사랑해엽. ~~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ㅋㅋ...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봄이사랑 2008.03.27 17:33

"여러분"  
에 한표....

진달이 2008.04.09 22:52

참여시민여러분

오늘 총선 참패의 하루를 보내며 누구를 향하는 분노인지 알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럴줄 알았지만 서럽디 서럽디 달래기를 무엇으로 할까요?  
비겁한 맘이 듅니다. 이꼴저꼴 보지말고 타인처럼살게 집 보따리 싸서 필리핀 이민 보따리라도 싸까? 도피맞습니다..도피 아방궁 봉  
화마을에 등지 틀까?

대륜 2008.04.15 20:56

노래를 부르며...  
네 대접하지 못해 아쉬워 하시는 대통령님의 마음을 방문자들과 같이 노래하시는 건 어때요?  
'고향의 봄' '개나리' '아리랑' '아리랑 목동' 등등 ...  
그리울 때 담아 부르는 노래로요.  
건강하시어요^^

짱짱아 2008.04.16 02:43

품위있고 멋있는 노대통령님..  
사랑해요.. 아직 전 봉화마을 못가보았습니다.. 신랑하고 같이 갈려고 시간을 짜보고 있지만.. 서울이라서.. 아직 못가보았기에..너  
무도 가보고 싶습니다.. 암튼 ..건강하십시오.. 우리 대통령님...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든든해 보입니다.. 장수하시옵  
길...

짱짱아 2008.04.16 02:47

손주 태우시고 자전거 타신모습을 보고..~`  
어제 티비에서.. 자전거 에.. 손주 태우시고 가시는 모습보고.. 너무 반갑고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대통  
령님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애국청소년 2008.04.25 18:07

노무현 대통령님 당선되던 날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지지운동에도 따라다니고, 선거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광화문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다 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기에  
자택으로 찾아가 리무진을 타고 오시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처음 뵈던 기억... 참 시간은 빠르네요. 벌써 정권이 교체되고... 참... 노대  
통령님이 벌써부터 그리워지는데 남은 4년 7개월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ㅠㅠ

아라세상 2008.05.09 17:32

친구여러분으로 불러주시면 안될까요?  
거창한 호칭보다는 정말 국민들의 삶속으로 들어오신 대통령님의 든든한 친구여러분 중 하나이고 싶습니다.

중심에서다. 2008.07.03 23:13

편하게 불러주세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노무현님이 편하신대로..  
그래야 서로 친근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륜 2008.07.19 23:50

이렇게 순수한 흠피...  
처음의 설레임처럼 호칭을 가지고 즐겁게 고민하신 모습 눈에 선 합니다.  
이 분위기를 살렸더라면 작은 힘으로 크게 조연하는 마당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모임이니까요. 처음처럼 말입니다.^^

드래곤나인 2009.05.23 16:45

휴~그리울거예요~TT 이렇게 욕심없이 사시려고 노력했던 분이신데..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쥬이 2009.05.23 18:14

노공님....오늘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당신이 안계신 세상에 내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수 있다는게 너무 싫어  
사람들을 쳐다볼수가 없습니다.  
내 책상앞에는 "노무현처럼 살기"라고 써놓았지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망연자실입니다.제 인생의 큰 변화가 생길듯 합니다.ㅡ  
ㅡ

노쟁어페어 2009.05.23 21:52

존경했어요...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였다고...

여름꽃 2009.05.23 22:48

당신은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님이 너무 그리워 대통령후보 연설을 보며 울었는데...  
오늘은 밥 숟가락을 들 수도 없는채 눈물만 줄줄 흐릅니다.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은 절반의 국민이 있는 나라에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땅에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사랑합니다노무현대통령님 2009.05.23 23:47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림습니다.

꼬마빛 2009.05.24 00:05

꼭 한번 뵈게 되길 기대했는데,  
당신의 미소를 꼭 직접 뵈고 싶었는데,  
하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사람입니다 2009.05.24 00:13

친구여러분...

뒤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하시며, 설레이기도 하셨을...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네요.. 곁에서 떠나시고

뒤늦게 찾아와 보니...

왜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나.. 싶습니다.

맘속으로만 응원했던게 후회됩니다.

분면 힘이 되어드릴수 있었을텐데...

죄송합니다.

하얀땀 2009.05.24 00:16

봉화마을에서 두분비니 넘친근감이 가고 환한미소 눈에 선 하건만 오늘 이렇게 비보를~~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 할길 없습니다

gumbang 2009.05.24 01:21

당신이 그립습니다 T T

windy\_ 2009.05.24 02:54

죄송합니다...

sopia 2009.05.24 06:58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겨울탱고 2009.05.24 08:00

글을 읽어내려가 그만 눈물이 주르르.....

넘 슬픉니다

그사세 2009.05.24 09:39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스 2009.05.24 15:57

사랑합니다..... 영원한 돌콩 노무현.....

별똥별꽃 2009.05.24 16:55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서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2009.05.24 17:18

보고싶어요..

슬피요슬피 2009.05.24 17:50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는 부디 편히 계시기를.....

꼬마신남 2009.05.24 17:56

우리에게 항상 힘이되어 주셨던 님!

사랑하고,존경합니다. 또 잊지못할 겁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FSB 2009.05.24 17:57

...'사람사는 세상'에서의 첫 댓글입니다... 아 미칠듯한 괴로움입니다..그리고 미칠듯한 후회입니다.. 이리 좋은분을 이리 가까이 계셨던 분을..뒤늦게 알았다는게..아 정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게 맞습니까 T T?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으셨습니까 T T? 믿었던 국민들이 외면해서...얼마나 힘드셨습니까... T T T T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아.. 보고싶어요..정말 보고싶어요..제가 투표할 수 있는 나이였더라면..정말 노짱 투표하고 싶어요..내년정도면 투표할 수 있는 나이인데... 계속해서 슬피 하면 안되는데 왜 이렇게 미칠듯이 슬픈건지...정말 죽겠습니다...바보같아요..당신 바보였어요..당신은 국민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국민의 언론의 논락을 믿고 당신을 외면했어요...대통령이셨을때...사랑할결...관심가질결...정말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당신을 몰랐던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부디 좋은 곳에 가서서 못다한 꿈 꼭 이루시고, 자유롭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글 쓰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만큼 경솔하지 않을거 같은데..정말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지요...그토록 믿었던 국민들에게 외면 받았으니... T T T 정말 죄송합니다..사랑합니다.당신은 영원한 우리들 마음 속의 진정한 대통령이십니다.. ㅁ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ㅁㅁ

하늘바라기85 2009.05.24 21:32

아..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는.. 이 말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늦게나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초자 2009.05.24 21:39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셔야만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결이1 2009.05.24 22:2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맑고영롱한 2009.05.24 22:35

떠나신 후에야 찾아왔습니다.  
한줄 한줄 읽다보니 대통령님의 말투가 문장 가득히 남아 있는듯 합니다.  
파스하고 인간적인 대통령님을 잊지 못할겁니다.  
아니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가시는 길 외롭지 않고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월산 2009.05.24 23:48

너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존경배려 2009.05.25 00:06

떠나고 나서야 찾아온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갈색낙엽 2009.05.25 00:11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끄러운 서민 2009.05.25 10:26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멋진 분이었던 걸...

후회막심 2009.05.25 11:24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제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좋은 분이신걸 왜 몰랐을까??? 바보라는 별명을 켈로 맘에 들어하셨던.  
정말 바보같이 우릴 버리신 노무현 대통령님..  
가슴속에.. 깊이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히 쉬세요....

토마니 2009.05.25 11:25

국민과의 소통을 즐기던 대통령님!!! 왜 이제야 찾아왔을까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늘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아리요 2009.05.25 14:47

늦었습니다... 너무도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립습니다. 보급습니다.

넓고 깊은 뜻 기리며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부디부디 평안하소서..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노대통령님사랑합니다7 2009.05.25 20:24

편히쉬십시오..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의제일큰별..노무현대통령님..  
고인의명복을빌겠습니다

haebalak2 2009.05.25 21:06

가입한지는 꽤 오래됐는데  
대통령님 글은 몇 개 못읽어왔던것 같습니다.  
유령회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다시 찾아와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그동안의 글들을 읽습니다.

사랑하므로... 2009.05.25 22:20

쓰신 글을 읽었더니 님의 모습이 떠올라 읽는 중에는 미소가... 아... 왜가셨습니까.. 이렇게 화포천 독길을 걸으시고 우리들의 찾아  
가면 봉화산 저 멀리 예서라도 손이라 흔들어주시지... 참 푸근하신 분이구나...정이 많으신 분이구나...이렇게 좋은신 분이라는  
걸...세상은 좋은사람을 그냥두지않나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법없어도 사시는 분이라 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셨는데... 저희 친  
정아버지랑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부디 편안하소서

from 리움 2009.05.25 23:15

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사람!!노무현!!대통령을 사랑합니다..불러도 불러도 이제는 대답해 주시기 아느니..어찌하나  
요..사랑합니다..내가 뽑은 대통령..벌써 그립습니다..어찌하나요..ㅠㅠ

하양괘이 2009.05.26 00:59

글속에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슬픕니다.. 그모습 다시 볼수 없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편히 쉬세요..

금동이네 2009.05.26 02:51

어떤 글을 쓰셨을까 이제야 봤습니다. 항상 나도 가서 봐야지 하면서 오늘에야 가입하고 대통령님의 글을 대통령님의 어조로 읽어  
보니 더욱 그립습니다. 요 며칠은 울어도 울어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2009.05.26 03:42

너무 늦은것같습니다.. 언제 한번 가봐야지 가봐야지 했는데.. 결국..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계셔서 그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곳  
에선.. 마음도 몸도 아프지말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뵈겠죠?? 그때까지 편안하세요..대통령.. 할아버지.....



시성두보 2009.05.26 03:58

친구여러분은 대통령님과 맞먹자는거 같네요 ;; 국민여러분이라고해주세요

초가삼칸 2009.05.26 06:37

당신이 잤다는 사실이 곳에 와서 당신의 글을 대하니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에 대한 그리움 이루 말할 수 없네요.어떻게 다 놓고 갈 수 있었는지요!!!!

Breez 2009.05.26 11:27

참 많이 죄스럽고 눈물만 흐르네요. 부디 모두 다 놓으시고 편안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흥제암산 2009.05.26 11:43

참으로 안타깝고 서럽습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던 '바보'를 잊지 못 할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고 난 후에야 당신의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으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편안하소서.

플빛이슬 2009.05.26 13:52

늦어서 죄송합니다. 생전에 꼭 찾아뵙고 손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죄스럽습니다. 조문을 하고 오면서 한없이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나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순천에서

필조아 2009.05.26 17:15

참 멋있는 분이셨군요....참으로 따뜻한 분이셨네요... 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마지막글이 또 저를 울리네요.....그냥 친구라고 한번만 불러주셨으면...

기억할께요~ 2009.05.26 18:28

이곳에 와서야.. 마음이 편안해 지네요~ 아직도 우리 곁에 계신거 같아서... 올 여름휴가때 봉하마을에 갈 계획을 했습니다.. 운 좋으면 멀리서나마 당신을 보기 위해서요... 이젠.. 국화꽃을 가슴에 품고 봉하를 찾아야겠네요.. 당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대통령이었고, 든든한 대한민국의 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편안하소서..

도도켓 2009.05.26 19:19

ㅠㅈㅠㅈㅠㅈ 이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친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랭 2009.05.26 19:55

현기증이 난다... 돌아가고 싶다..

영원한...대통령님 2009.05.26 20:44

노짱!! 노간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님!!! ㅠㅈㅠㅈ 진작 찾아오지 못하게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제발 편안하게 쉬세요~~~`나라의 일은 걱정마시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실수 있는 나라가 되었음 좋겠는데 ㅠㅈ 그동안 대통령님 덕분에 잠시나마 평화로운 나라에서 편히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죄송합니다 ㅠㅈ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너무멋있는 사람냄새가 났던 다시는 없을 정말 인간다운 사람좋아하는 대통령님 너무 그립습니다 못잊을겁니다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과 그온화했던 웃음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편히편히 쉬세요...

별이가득 2009.05.26 21:20

너무 늦게 인사드립니다..ㅠ 죄송해요..지켜드리지 못해서...아...이 마음 어쩔까요?ㅠ 친구여러분이라고 부르셨던 대통령님을...어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ㅠ

왕눈이즈 2009.05.27 03:14

대통령님의 자취를 따라 이제서야 들려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부디 평안히 잠드소서

인살라! 2009.05.27 03:46

왜... 제가 이제서야 이곳에 온것일까요.... 당신이 살아계실때 직접 소통했다라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져버릴것 같습니다

흐린 하늘 2009.05.27 08:35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늦게, 이렇게 늦게 당신의 그 거대한 사랑을 깨우친 것을 용서하십시오....

면목없는국민 2009.05.27 10:22

당신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이제야 참모습을 알아보게 된 제 자신이 너무도 밍습니다.. 그립습니다...당신과 함께한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립습니다...

못잊어생각이나겠지요 2009.05.27 11:49

▶◀ 보고 싶어요. 그리워서 눈물만 납니다. 가슴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쁘띠로즈 2009.05.27 14:52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만 조금 버리셨다면 당신을 조금 더 생각하셨다면...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을텐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켜 주고 있어서...이렇게 가셨다는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부디 걱정없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립습니다...언제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소중한분을 떠나보내며...

8장미8 2009.05.27 21:03

이글을 보니 다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 저는 이제야 이글을 이 사이트를 이제야 오게 되었는지

지금 여기에 같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ㄷ ㄷ ㄷ

**jin82** 2009.05.27 21:57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립습니다..당신이 떠난후에 알았습니다..  
슬픔이 너무 크다는걸..  
살아생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  
부디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제라도 많은 깨달음을 알게 해주셔서..

편안히잠드소서 2009.05.27 22:28

존경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훗날 노무현대통령님을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ㄷㄷ

주얼 2009.05.27 23:11

영원히 기억에 남아계실 노무현대통령님  
존경스럽습니다  
지금은 그저 슬프기만합니다ㄷㄷ

다이나믹~ 2009.05.27 23:21

언젠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보다, 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이리 허망히 가시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지만, 대학생은 참사람으로 살기 적절치 않은 공간입니다. 참 사람으로 살다간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잘 맞지 않은 동료들이 많은 관계로 인간관계에서도 버림받곤 합니다. 참 사람으로 살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참 사람으로 살고픈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참사람 대통령이 가시니, 저는 참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씨앗키움 2009.05.28 00:14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m**다반향초 2009.05.28 11:12

따스한온정을 느끼게해주신 분입니다. 맘이 무겁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멀리 멀리 보내야 하니 가슴만 아플 뿐입니다. 소박하게 사시고저 하셨는데 그 뜻도 헤아리지 못한 현 이시대에 우리만 남겨 놓고 어찌 이리 빨리 가실수 있나요?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내 맘속엔 영원히 보내고 싶지 않네요~

노력과 2009.05.28 12:28

그당시 뵈지 않았어도 그미소면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마음 한권이 따뜻해지는....뜨거운 눈물로 꼭차는 느낌이네요...

하얀내마음 2009.05.28 14:14

보고싶다....ㄷ.ㄷ 그립습니다....ㄷ.ㄷ 이제는 못 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토토로72 2009.05.28 15:0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노무현대통령님도 그립고, 제 아버지도 그립습니다.

그리운바보 2009.05.28 15:53

보고 싶고 그립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거 같아서 일도 못하겠고  
잠도 못자겠어요.. 대통령님 보고 싶어요....

흰꽃이.. 2009.05.28 16:57

너무도 짧은 시간.. 잠시라도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U\_ONE** 2009.05.29 02:14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한창 일하실때 선생님을 알기엔 전 너무 어렸던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 나이는 여전히 어리지만..  
이젠 선생님께서 얼마나 소중하신분인지 조금 알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정 태 교 2009.05.29 16:38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노무현님의 진정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훗날 사람들이 평가하겠지요.  
당신은 위인이니까요.

같은 시대에 당신같은 분이 계셨다는게 자랑스럽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하나의 인연 2009.05.29 17:52

대통령님이 주인으로 여기신 여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을 오늘 보내 드립니다  
당신의 지지자였지만 방관자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과 분노와 사랑과 뒤늦은 후회로 .. 살아계셨을때 이곳에 따뜻한 글 한줄 올리지 못한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 그 때 그 때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한것이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겠습니다 정치가 바로 설수 있게 저도 방관자로 살지 않겠다고  
아주 미약한 힘이나마 당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마치 1980년대 인것 같습니다 30년을 뒤로 후퇴하는 시대 인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숙제를 하나 하나 풀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 두손고이 모아 빌어 봅니다  
부디 부디 편안히 .. 가십시오 .... 존경했습니다 ..

평화된마음 2009.05.29 20:04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바쳐서 정치를 하셨으니,,, 부디 좋은 곳에 가서서  
이생에서 못한일 편히 쉬시면서 다 이룰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생에서는 절대로 정치는 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힘들어집니다...  
다음생에는 편안히 평범하게 사세요...  
정말 진심으로 지금 찾아뵈기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편안히 가세요... 명복을 빕니다.....

초코마뽀 2009.05.29 21:21

편안히 저세상에 가서는 행복하세요.

씨엘르 2009.05.29 21:42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당신께서 이리도 좋은분 이라는걸 이제사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저를 반성합니다..  
그동안 험겁게 혼자 짊어지셨던 짐 이제는 내려 놓으시고 그곳에서  
부디 편히 쉬세요..

gobara 2009.05.30 00:52

다정한 사람...그래도 가끔 내려다 보실꺼죠?

노통령님사랑해요 2009.05.30 01:10

다음생에도 꼭저와 같은시대에 태어나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부득이하게 정치를하시게된다면..  
그땐 꼭 노사모 회원이 되어 노통령님을 지지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제서야 노통령님의 진심과 진짜모습을 알게된제자신이 후회스럽습니다....TT  
기자도없고 썩어빠진정치와 mb없는 천국에서는 봉하마을에서 못다한 행복 맘껏 누리시길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unforgettable 2009.05.30 02:02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 ♥

한울담 2009.05.30 02:29

해야할일이 많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가시면 어찌합니까.. 그 소박하신 꿈조차 이룰수 없었던 님의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여..  
이젠 너무 힘들어하지마세여.. 편히 쉬세여... 사랑합니다....

마보곰팅 2009.05.30 02:31

대통령님 너무 보고싶어요...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행복 사랑 2009.05.30 11:21

글일 읽다보니 대통령의 모습에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그 행복또한 비디오를보듯 선하게 떠오릅니다 농촌을 위해 어릴적 고향을 되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 아~그럽습니다

무우울 2009.05.30 11:32

님을 보내고서야 카페에 회원이 되었습니다 진작에 더 진작에 님을 뜻을 헤아렸어야했는데...부질없는 일이지만 반성으로 사죄를 대신하며 앞으로는 영원히 변치않고 사랑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편히 잠드소서 나의 대통령님!

민지초은맘 2009.05.30 15:44

너무.보고싶습니다

무료주차장 2009.05.30 15:59

홈페이지가 있는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직접 글도 올려 주시고...함께 참여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진작에 왔어야했는데  
이제야 안타까운 눈물을 또 다시 흘려봅니다..너무 죄송합니다..보고싶습니다.

vnfRhctkfd 2009.05.30 18:24

뵈러 간다 간다 하면서 못갔는데 언제가도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찌쥬 가도 뵈을수도 없고.....

날개하나 2009.05.30 21:24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영영영 TT...

jumaneee 2009.05.30 21:52

대통령님의 이 말씀에 가슴이 저립니다

...

"이런 저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유선 2009.05.30 22:35

노대통령님.  
당신의 소박한 생활도 지켜드리지 못한 현실이 죄송할 뿐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부디 좋은 곳 가서서 편히 사세요.  
진심으로 당신의 국민이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술쌤 2009.05.31 00:55

사랑하는 우리들의 대통령님..지금 계신 그곳.. 평안하신지요..  
그립고 또 그리워 왔다가..  
서럽고 아픈 가슴 치며 울다갑니다..아..

영원히사랑해요 2009.05.31 01:35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영원히..  
너무나 순수하시고 열정적이셨던 분 이제 안계시다니 비통하고 원통합니다.

말광이 2009.05.31 02:36

님께써 가졌지만 글을 읽으니 꼭 봉화마을에 계신듯해요  
아니 게실거라고 믿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_\_사랑합니다.\_\_\_\_\_\_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의약속 2009.05.31 05:52

부끄러워 타자도 잘 안쳐집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아직도 국민의 대통령이란거 잊지마세요.,

사랑합니다 ♡ 2009.05.31 10:11

당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여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

노랑풍선들 2009.05.31 10:41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습니다...

그분의말 2009.05.31 13:19

대통령님, 보고싶어요..  
정말 많이 아주 많이 그리워요.  
목소리도 듣고 싶고, 온화하게 웃는 모습도 보고싶고..  
다 소중한고 다 그리운데 왜 살아계실 때 찾아뵙지 못했는지 너무 후회되요.  
대통령님, 아주많이 좋아합니다! 듣고계시죠? 보고계시죠?  
완전 소중한 나의 대통령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cellook 2009.05.31 20:09

알수록 훌륭한 분이라는게 느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다는거.  
죄송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이제야 알고 있다는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정태화 2009.05.31 20:13

대통령님의 떠난자리가 더욱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편안한 곳에서 대통령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 가는 것을  
평온한 마음을 지켜보실꺼라 믿겠습니다.

hooo 2009.05.31 22:04

보고싶어요.....당신같은 분이 돌아가셨어야 했던 뒤같은 세상이 신물이 납니다.....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면목이  
없습니다.

내사랑초코 2009.06.01 15:29

많이 보고싶고 많이 그립습니다..영원한 우리의 대통령님...  
이렇게 인간적인 분이신데..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신데..  
또다시 대통령님 같은 분을 만나뵐수 있을까요....

장미86 2009.06.01 17:30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편히 가소서..극락왕생 하소서....

윤뽕 2009.06.01 22:40

사랑합니다.저에겐 단한사람 노무현 대통령님.

함께하는세상에서 2009.06.02 16:41

편안하세요..?  
좀 자유로워지셨어요..?  
행복하셔야되요...  
보고싶어요..

미러켓 2009.06.02 18:02

진정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우리시민의 힘이 되시는분이었는데,,,보고싶습니다

우영엄마 2009.06.03 13:30

당신이 세상에 조금 더 머무르셨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이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글에서 당신내음을 한껏

말고 갑니다. 글 하나하나 아껴 읽으렵니다.

노형님 2009.06.03 16:31

가신 뒤에야 발자취나마 느껴보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كلما 느껴지는 파스함에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정엄 2009.06.03 19:25

참으로 행복해 하시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 그립습니다.

구카 2009.06.04 15:51

대통령님!이때처럼 지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아아!너무나 아까운 우리 대통령님을 보내고야 말았습니다!이 더러운세상이 싫어집니다.

tina 2009.06.04 19:59

보고싶어요

tina 2009.06.04 19:59

보고싶어요

울트라짱겅쟁이 2009.06.05 23:28

왜 전 당신이 이 세상에 안계시고나서야 이 글을 읽게되는 걸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당신에게 무관심했는지? 왜 당신을 알려하지 않았는지?  
정말 제 자신이 밉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내게 아니 우리에게 너무나 훌륭한 진짜 앞으로 절대 만나뵙지 못할 대통령인데 왜 몰라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메어져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참여시민, 민주시민 꼭 그렇게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 우리가 꼭 이루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곰슬곰슬 2009.06.08 00:52

한 자, 한 자 읽어내려가는데 노짱의 음성이 제 마음에 울려퍼집니다.  
마치 노짱이 읽어주는 편지를 듣는 것처럼...  
'글쓴이 노무현'이라는 글자가 아직 내 눈앞에 이렇게 선명한데...  
시간은 흘러가지만 아직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 데에는  
노짱의 자취가 너무도 선명해서인가 봅니다.  
그래서...오늘도 그립습니다..

준앤옥 2009.06.08 19:23

노무현님의 글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자꾸..이렇게 그리워지면 어찌죠? 너무 힘들어요..  
세상은 미쳐돌아가고..우리 국민은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요...

봉화로 2009.06.09 00:59

내일 내일,하며 미루다 돌아가신후에 봉하를 찾았습니다.울면서 찾아간 봉하천리길이 이렇게 가까웠던것을.....죄송합니다.높으신뜻에 맞지않은 국민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동시대를 살았고 당신의 국민이었던것이...

지수 2009.06.09 05:05

숲이 너무 쓸데없이 우거져서,, 참그런디.. 노짱님이 안계시니 그걸 누가 한탄말입니까~!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존경했습니다~그 미소 그 웃음 볼수없으니,,

Heather 2009.06.11 03:13

남겨주신 많은 것들이 고맙습니다.  
다시와서 보고 또 보고....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자꾸만 이곳으로 저를 데려오네요.

고마워요바보 2009.06.12 22:39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님을 우리 국민의 영원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훌륭한 역사로 기억하겠습니다. 훗날, 제가 자식을 낳으면 노무현 대통령님을 가장 훌륭한 역사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태야 2009.06.13 14:36

인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도 정말 죄스럽습니다. 항상 말로만 노무현 대통령 추종자라고 하다가..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해나라 2009.06.16 17:14

마지막에 친구여러분.....휴...다시 봐도 정겹습니다....대통령님 보고싶고 그립습니다..

담녕쿨 2009.06.16 20:05

가신분의 빈자리가 너무크나롭니다.이제야 알아서 죄송합니다.존경합니다.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선하루전에 정몽준이 배신때렸을때 그집앞 대문에서 입술이 까맣게 타들어가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던 그모습 다음날 그래서 한표를 찍었는데..후회됩니다.혹시 내한표라도 찍지않았음 대통령이 안되어 이런 비극은 없었을까..이제야 그 가치를 알아 죄송합니다.아직도 맘이 아픕니다.마치 가족을 잃은 슬픔처럼

기주엄마 2009.06.18 02:08

우리는천년에한번 탄생하시는큰별을잃었습니다이의인을잃고서어찌통곡하지않을수있겠습니까가슴이아려오고 주위들의식해신음할뿐입니다 무엇인지생활자체가불만스럽습니다 역물한생각을 떨칠수가없습니다 예 노짱님도아오신다면 어떤것도할것같습니다  
아까운별을떨으며떠린인간들에게

哀而不非 2009.06.24 15:37

노짱님...

과란대문 2009.06.24 16:00

오늘에서야 회원가입을 하고 당신께서 쓰신글을 침부터 읽어보려합니다. 지금도 가슴이 뭉클뭉클한것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ㅠ ㅠ

**baboj** 2009.06.26 23:01

조이님이 노무현처럼 살기라고 책상앞에 적어놓으셨다는 말에 한없이 가슴이 먹먹해지는군요..노무현처럼 살기..노무현처럼 살기..아 너무너무 보고싶습니다.

라이드 2009.06.27 09:58

참여시민 여러분이든 친구 여러분이든 저희를 불러 주실 님이 이제 안 계시니 저희는 어찌 하오리까...

과란곰 2009.07.02 22:1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 보고싶습니다. 흐르는 눈물 언제쯤 닦아주시렵니까. 무정하게 소식 없으신 우리 대통령님.....아...국민의 진정한 아버지여..

가을여자 2009.07.07 14:17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끝까지..~존경하며..~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날..~꼭..~마중나와 주십시오..~~~~~

해토르 2009.07.11 10:28

으양○○○○○○○○○○○○○○○○○○○○보고싶어요

양술이 2009.07.15 09:43

있고 나서야 땅이 꺼지듯 망연자실 안타까움에 절절매는 이 모습조차  
당신은 어루만져 주실것 같네요.  
정말 사랑 할 만한 사람, 정말 사랑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  
인간 노 무현!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 노 무현 대통령님!  
사랑해요!

**gamcho1** 2009.07.15 13:41

이 글을 다시 읽으니 또 눈물이 납니다 아깝고 또 아까우신 분  
너무 너무 아까우신분 부디 좋은 곳으로 가소서

옴은일엔용기를 2009.07.20 13:16

영원히 잊지않겠습니다....따스한 우리의 노짱님

로또야 2009.08.13 15:17

인사드리러 왔습니다^^사랑합니다...

**Qkfroddl** 2009.08.17 12:20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배지 부른 당신같은 인간들이 헛소리를 해대도 참을 수 있게 된 것인바, 새마을 운동에 부정적인 역사의 유물이라고? 에라 이 나쁜 노무현아.

**daytripper** 2009.08.18 23:49

마보같은 촌평으로 댓글창이 더러워지네요

이쁜야시 2009.08.28 17:51

뵈고싶어왔습니다.. 이렇게 또 눈물흘리고... 따뜻한 마음 안고갑니다...  
사랑합니다...

환생 2009.09.28 21:24

글쓴이 "노무현" 세글자만 보아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처럼 글을 잘쓰지도 내 마음을 잘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우리 대통령님처럼 가슴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나타나 그쪽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만 같습니다.  
천국에 와보니...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만 같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가을 들녘이 당신이 좋아하시는 당신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지요..

**dudey** 2009.10.28 16:58

그립습니다... 그립다는 생각을 하는걸 보니 이제 님이 없으신 이세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나 봅니다.  
그리울겁니다. 보고싶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 어지러운 세상에 님같은 이 하나 없다는게  
이다지도 서러울 줄은 미처 몰랐네요...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캡틴...

거정 2009.11.27 13:31

주인 안계신 빈집,돌아오실때까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marie chantal** 2009.12.19 01:56

아깝고도 아까운 노무현 대통령님,..  
시간 날때마다 대통령님의 글을 아껴가며 읽고 또 읽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씨니123 2010.03.21 10:05

다시 읽어보니 더 그립습니다....대통령님..지켜보고 세시지요?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토록아름다운 2010.05.09 04:49

정말..글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는 동안 나도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건,  
..정말 당신이 그리워서 이겠지요.....

배려여왕 2010.06.05 23:34

정말 보고싶네요... 노무현 대통령님...  
원하셨던 세상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석가다보탑 2010.07.15 12:20

오늘도 당신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이 보고싶고 그립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봉하들력이, 연지못과 들레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여 가고 있는지~  
봉하 그 곳에 넘만 계시면~그런데 넘만 보이지 않군요.  
당신 그리워지면 여사님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겠습니다.

석가다보탑 2010.07.15 12:41

노장님!  
이젠 여사님도 가족들도 웃으면 사시길 두손 모으고 기도드립니다.

무니씨 2010.09.19 21:47

친구라고 부를 수있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  
다시 읽자니 뭔가가 울컥합니다.

피용광광 2011.03.12 22:49

보고싶어요

한남 2011.04.28 23:34

아~ 다시 와서 둘러 봅니다.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내인생태클사절줄 2011.12.26 20:05

웨이제서야 당신이 좋아지는지 ㅠ ㅠ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보고싶습니다.

유일존경 2012.01.12 14:02

왜 진작 찾아뵙지 못했는지... 위로의 한줄이라도 올리지 못했는지...  
너무나 후회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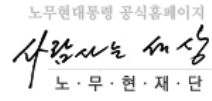
흔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18	글을 올려놓고 보니 (237)	61593	노무현	2009.02.22
17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58)	67554	노무현	2009.02.22
16	한국정치학회와의 대답 (45)	32567	운영자	2008.10.16
15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53)	30594	노무현	2008.10.02
14	회원 게시판은 30,000번째 글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304)	124593	노무현	2008.03.27
13	생활의 작은 기쁨 (185)	128080	노무현	2008.03.09
12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요. (252)	148184	노무현	2008.03.06
11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119)	124448	노무현	2008.02.29
현재글	안녕하십니까-봉하에서 띄우는 두 번째 편지 (311)	163017	노무현	2008.03.03
9	부산 개성고(부산상고) 총동문회 (61)	60251	운영자	2008.02.29
8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인사말(봉하마을) (60)	31571	운영자	2008.02.26
7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환영행사(밀양역) (30)	21640	운영자	2008.02.25
6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노무현의 민주주의론 (48)	60556	노무현	2008.02.20
5	대통령 한 사람 힘으로 역사발전하는 것 아니다 (11)	13964	운영자	2007.11.11
4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5)	6483	운영자	2007.10.18
3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4)	4707	운영자	2007.06.08

2	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7)	7097	운영자	2007.06.02
1	국방·외교·안보·통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20)	27257	운영자	2006.12.21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완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ALL RIGHTS RESERVED. [문화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회원·홈페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묘역·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분하장터 1599-1946 / 생가센터 055-344-1005